

V O L V O

The new

VOLVO TRACTOR



Volvo Trucks. Driving Progress

볼보트럭, 연비와 효율을 말한다!

2024년, 볼보트럭이 향상된 연비와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더 매끄러운 주행

공기역학적 디자인

장거리 트럭의 공기저항에 따른 에너지 손실은 최소 30%. 볼보트럭의 진화된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신기술로 에너지 소비 및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물류 운송을 위한 최적의 설계입니다.



더 혁신적인 첨단 기술

CMS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대형 트럭의 공기역학과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존의 외부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CMS는 비가 오거나 어두운 곳 또는 직사광선 아래서나 터널을 운전할 때 운전자의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여줍니다.



최첨단 기술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

ACC에 자동조향 기능까지 합쳐진 최첨단 운전보조 시스템. 운전자의 가벼운 핸들신호만으로 주행속도와 차간거리를 자동으로 제어하며,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고 부드럽게 핸들이 조작됩니다.



새로움과 혁신

최고의 트랙터를 원하신다면 오직 볼보입니다!

- 운전자 지원 시스템 (카메라)
볼보의 안전 철학, 볼보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사고 예방을 도와줍니다.
- CMS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보조석 사각지대 카메라
- 어댑티브 하이빔 LED 헤드램프

- 레이더
차량 전면에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거리를 측정합니다.
- 루프 해치 (유리)
- 글로브트로터



FH AERO 540hp 6X2
글로브트로터 XL



FH 540hp 6X2 글로브트로터 XL

- NEW 아이언 마크
- 대용량 연료탱크 (450ℓ)
- 도어 스텝

- I-SHIFT 듀얼클러치
- 대형 외부 사물함
- 측면충돌방지시스템 (레이더 좌·우)

- 하중계
- 알코어 울트라윈 알루미늄휠 + 볼보 로고 크롬너트캡
- LED 테일램프

THE NEW VOLVO INTERIOR

FH 540hp 6X2 글로벌트럭 XL 실내공간

섬세하고 남다른 배려

운전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편의사양은 장거리 운행에 편안함을 더해 운전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엠블럼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컨트롤



엔진브레이크/와이퍼 조절장치



12인치 디지털 계기판



9인치 측면 디스플레이(네비게이션/
보조석 사각지대 카메라/오디오 시스템)



전자제어식 자동 공조장치



C 타입 USB (6EA)



운전석 가죽시트
에어서스펜션/통풍/열선기능



냉장/냉동고, 수납공간

안전하게 더욱 완전하게

모든 상황에서 사람과 차량을 보호하는 볼보의 더욱 강력한 혁신입니다.



보조석 사각지대 카메라



전방경고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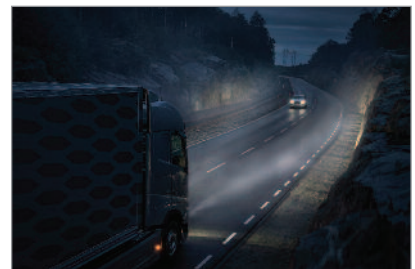
측면충돌방지시스템



ACC 오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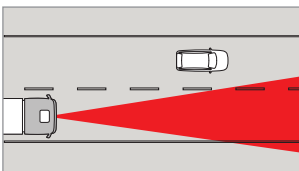


Auto Hold (오토 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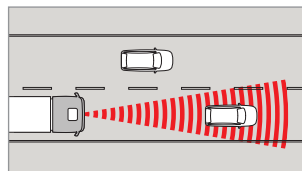


어댑티브 하이빔 LED 헤드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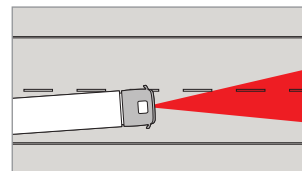
풀 세이프티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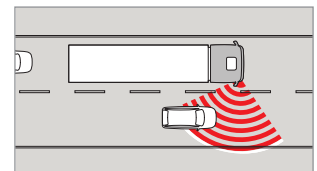
긴급 제동장치(AEBS)



차선 이탈 경고장치(LD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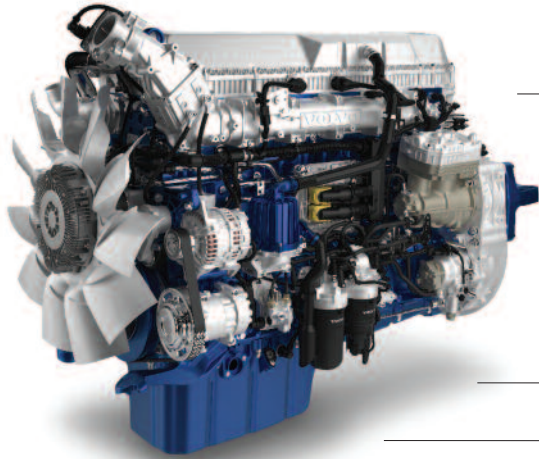
운전자 졸음 경고장치 (DAS)



차선 변경 보조장치 (LCS)

경이로운 파워와 연비 D13 eSCR FUEL SAVE ENGINE

최첨단 전자제어 기술과 신속하고 정확한 오일 분사 능력으로 연비효율을 극대화하며, 유로6 스텝E를 만족하는 친환경 엔진입니다.



D13 eSCR 디젤 엔진 (Step E)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며
토크가 강한 용량 13리터, 540hp 엔진입니다.

- 분사 정확도가 향상된 인젝터
- 밸브 타이밍을 개선한 캠 샤프트
- 연소 효율이 극대화된 피스톤 보울
- 오일 펌프 ○ 엔진 제어 모듈 (ECM4.0)
- 엔진 후처리장치 (EATS) ○ 고성능 터보
- 연료 필터 (볼보 특허) ○ 대용량 알터네이터
- 전자제어 가변식 스티어링 펌프

D13K 540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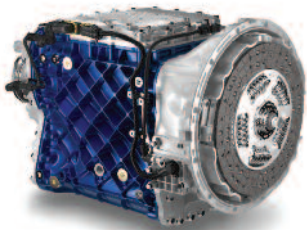
배기량 **12,777 cc**
최고출력 **540 hp** / 1,460 ~ 1,700rpm
최대토크 **265 kg·m** / 1,000 ~ 1,460rpm

D13K 500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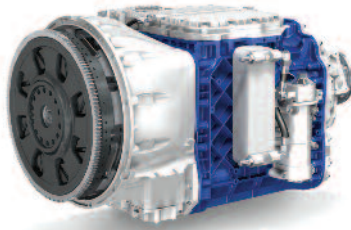
배기량 **12,777 cc**
최고출력 **500 hp** / 1,400~1,700rpm
최대토크 **255 kg·m** / 980~1,400rpm

혁신과 진화의 첨단 변속기 I-SHIFT

쉽고 안전하며 편안한 주행을 위해 설계된 첨단 자동변속기 I-Shift는 완벽한 타이밍에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합니다. 트럭 모델에 따라 새로운 I-Shift 버전을 이용하십시오.



수동보다 연비 좋은 자동변속기
I-SHIFT



두 개의 기어, 두 배의 변속 능력
I-SHIFT 듀얼클러치



거친 작업을 위한 저력
I-SHIFT 크롤러기어

I-SHIFT 특징점



편안한 운전,
정확한 운행



수동보다 연비가 우수



최고의 가동률

I-SHIFT 듀얼클러치 특징점



효율적인 운전



더욱 커진 편안함



I-SHIFT 듀얼 클러치

넓고 선명한 제3의 눈 - CMS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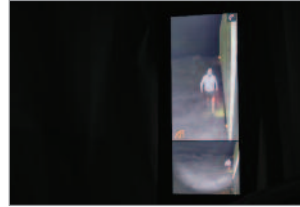
외부 사이드미러를 대체하고 더 나은 가시성과 시야를 확보해 주는 CMS는 운전의 편리함은 물론 야간운행이나 우천시에도 선명한 시야확보가 가능하여 안전성을 한층 높여드립니다.



야간 선명성 우수



눈부심이나 반사 없음



보안 감시 기능



후진 또는 코너링 시 넓은 시야각 제공

모든 지형에 연비주행 I-SEE

언덕과 산지가 많은 국내 도로환경에 적합한 지형예측형 크루즈컨트롤 I-SEE는 최적의 연비주행을 실현합니다

1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주행시 GPS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형정보 모니터링

2 저장된 정보 활용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오르막길 예측/자동 기어변속

3 출력 손실 최소화
사전 기어변속을 통해 출력 손실 최소화, 자동 스피드 탄력주행 유지

4 내리막길 제동 제어
지형정보에 따라 다가올 내리막 주행을 위한 에코롤(프리휠) 준비

5 다음 언덕길을 준비
내리막길 탄력 주행(프리휠) 유지 및 자동 속도 조절

6 연비 최적화 준비
지정된 지형정보에 따라 다시 연비 최적화를 위한 준비

세계적인 볼보의 핸들링 - VDS Evo

더욱 가볍고 정확한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의도는 물론, 트럭이 가는 방향을 파악하여 스티어링 움직임을 시정하고 추가 동력을 제공해 주는 최고의 혁신기술입니다.



특장점

- 안정적인 조향성
- 원활한 운행
- 간편한 후진
- 횡풍에 강함
- 거친 도로에서의 안정성
- 고속에서의 완벽한 안정성



차선 이탈 보정 기능 (스위치)



차체제어 보조 기능



VDS Evo 개인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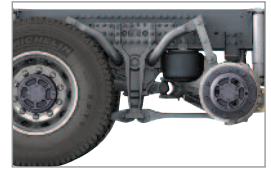
한층 진화된 설계공학

과학적인 구조의 새시는 적재효과를 높여주며, 강력한 액슬로 더 많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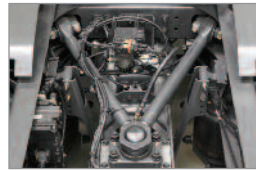


FH 540hp 6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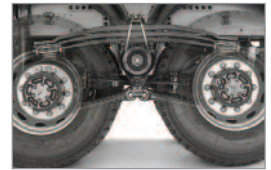
- 캡 에어서스펜션
- 알루미늄 트레일러 커넥션
- 알루미늄 에어탱크
- 에어벨로우즈
- 스테빌라이저바



후축 에어서스펜션 (6X2, 6X4)



V-ARM 타입 래디어스 로드



후축 리프서스펜션
(6X4 허브 리덕션)

Line-up

FH AERO 540hp 6X2
글로벌트로터 XL
듀얼클러치, 전축 에어서스펜션

FH 540hp 6X2
글로벌트로터 XL
듀얼클러치, 전축 에어서스펜션

FH 540hp 6X2
글로벌트로터
듀얼클러치, 전축 에어서스펜션

FH 540hp 6X2
표준캡
듀얼클러치



FH 500hp 6X2
글로벌트로터
I-SHIFT

FH 500hp 6X2
표준캡
I-SHIFT

FH 540hp 6X4
글로벌트로터
크롤러기어, 싱글, 에어서스펜션

FH 540hp 6X4
글로벌트로터
크롤러기어, 허브, 리프서스펜션



* [AERO는 주문 생산 모델입니다]

* 본 제작물의 사진은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구입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의 제원 및 사양은 차량 성능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표기된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